■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이병완 "강운태 후보 선출 축하"

정용화(왼쪽)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이병완(오른쪽)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운태 의원의 민주당 후보 선출을 축하했다. 정 후보는 "강운태 후보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과거 정치적 논리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광주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정정당당한 비전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도 강 의원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축하한 뒤 "강 후보와 광주의 희망찬 앞날을 의논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100년을 생각하는 정책선거로 만들자"고 부탁했다.

윤기선 "우수 교사 양성 주력"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낙후된 전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교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교사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 등 학생지도에 보탬이 되는 개인역량을 개발할 경우 비용전액을 지원하고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히 교사의 해외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해 전남교육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기남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교육비리의 차단을 위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교장과 교감 자격증 선취득자 우선 발령제 도입 ▲내부형 공모제 도입 등 교장 인사제도의 개선 ▲근무평정과 연구 시범학교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 ▲전문직 위주의 인사 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웅두, 민노 전남지사 후보에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에 박웅두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난 10일 순천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직후보 선출대회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민노당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형석 "북구에 활력 불어넣겠다"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중앙인맥을 기반으로 침체한 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근본은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토대로 한 공무원의 충실한 업무 처리와 함께 단체장의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종 "편파 여론조사 중단하라"

유창종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 경선대책본부는 11일 담양지역 2개 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 이들 신문이 해당 기사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 지역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함으로써 담양군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진원, 민주 강진군수 후보에

6·2지방선거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에 강진원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1일 강진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민주당원 50%와 일반 주민 50%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 강진원 예비후보가 국령애 예비후보를 제치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박진표기자 lucky@

선거구도 급변…광주 남구 보궐선거도 관심

강운태 국회의원 시장 출마로 7월 28일 보선 예상
양형일·장병완·지병문·이윤정 등 벌써부터 하마평
'출구 막힌' 전갑길 19대총선때 김동철에 도전할듯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7월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산 을)이 석패함에 따라 광산지역 정치구도도 복잡하게 얽힐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된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3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7월28일 치러진다.

일단 남구 보궐선거 후보군으로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에 따라 정동채 전 의원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남구에 20여년 이상 거주한데다 강운태 의원과도 상당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또한, 호남대 총장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의 인재라는 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 총장도 정치적 재기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18대 총선에서 강운태 의원에게 패배한 지병문 교수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윤정 남구 지역위원장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도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정확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당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거나 절반의 승리에 그칠 경우,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남구 보궐선거는 치열한 경쟁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광산구의 정치 지형은 복잡한 구도로 형성될 전망이다.

광산구청장을 사퇴하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후보단일화로 인해 이용섭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갑길 전 구청장의 정치적 출구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경선에서 승리했다면 16대 국회의원 출신의 전갑길 전 구청장은 광산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여가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갑길 전 구청장이 19대 총선에서 광산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철 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 갑 지역에서의 전갑길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도가 광산 을 지역보다 탄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광산구청장 및 지방의원 경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대 총선 구도가 얽히면서 경선 과정에서 고난도의 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강운태 의원이 공천장을 손에 쥔 이후에 현실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폴란드 대통령 탄 비행기 추락…97명 사망

시신 모두 수습…각국 정상 애도
무리한 착륙 등 사고 원인 의문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 등 97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 부부 등 폴란드 주요 인사 들을 포함해 탑승자 9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을 한꺼번에 잃은 폴란드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으며 폴란드 전역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시신 97구 모두 수습=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비상대책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푸틴 총리에게 사고 개요를 보고하면서 "카친스키 대통령을 비롯해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사고기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승무원 8명을 포함해 모두 97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1940년 옛 소련 비밀경찰이 폴란드인 2만2천명을 처형한 '카틴 숲 학살 사건'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고 러시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기장 관제탑 지시 거부, 왜?=러시아 검찰과 항공 당국에 따르면 사고기는 공항 주변에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했고, 활주로에서 300여m 떨어진 숲 속 나뭇가지 끝에 기체가 부딪힌 후 곧바로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폭발해 화재가 일어났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기 조종사가 벨라루스 민스크로 회항하라는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고 4번이나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항공 사고 전문가들은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가 나뭇가지에 걸리자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 밤새 추모행렬=슬픔에 빠진 폴란드 국민들은 붉은 장미와 흰 장미, 촛불을 들고 수도 바르샤바의 구시가지에 있는 대통령궁으로 찾아가 애도를 표했다. /연합뉴스

泰 시위 유혈사태 비화

일본인 기자 포함 18명 사망

도시 빈민층과 농촌을 지지기반으로 한 태국 시위대(UDD : 일명 레드셔츠)의 반정부 시위가 끝내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태국의 정정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일, 3주일 넘게 의회해산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군인, 일본 출신 로이터통신 카메라기자 등 최대 18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정부는 태국 신년 축제인 송끌란(13~15일) 연휴를 앞두고 시위대를 해산시켜 정국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위대 해산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정부는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군병력을 시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대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유혈사태의 저변에는 국왕과 왕실, 군부 등 지배 엘리트 계층과 농촌·빈민층 간의 계급 투쟁적인 성격이 깔려 있어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마저 희박한 상태이다.

반정부 시위대는 유혈사태 직후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푸미폰 국왕이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